

PREVIEW

# 활화산 같은 열정으로 탁영아



**한** 국은 물론 사우스이스턴 대 상주 연주자이자 필라델피아의 이스턴 음대 교수로 왕성히 무대를 꾸며 미국에서도 명성 높은 피아니스트 탁영아가 올 가을 다양한 형태의 음악회로 고국의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우선 10월 2일 부산 을숙도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명품콘서트 초청 연주회의 일환으로 'An Evening of Piano Duets'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피아니스트 문용희(피바디 음대 교수)·김정권(부산 국립대 교수)과 공연을 펼치는데 이어, 10월 16일 20시 성남아트센터에서 성남시향 정기연주회에서 브람스 〈협주곡 1번〉을 레퍼토리로 협연 무대를 꾸민다. 슈베르트 〈환타지, D940〉, 모차르트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K448〉, 생상 〈베토벤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35〉, 차이코프스키/바빈 〈에프게니 오네긴〉 중 '화려한 대 왈츠' 등을 레퍼토리로 펼칠 을숙도 콘서트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 연주자들과 한 무대에 오르게 의미 깊다고.

“을숙도에서 스승 문용희 선생님 및 선배 김정권 선생님과 셋이서 무대를 꾸미게 되는데요, 늘 같이 무대에 오르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듀오나 투 피아노로 꾸미지는 공연으로 프로그램이 다이내믹하고 다채로워요. 두 명씩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칠 예정인데요, 반응이 좋다면 앙코르에서는 세 명이 모두 같이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이려 준비하고 있어요.”

성남아트센터의 무대에서는 그녀가 오래전부터 좋아하던 브람스의 〈협주곡 1번〉을 연주하게되어 기대감이 배가된다.

“스케일이 굉장히 큰 대곡으로 브람스가 20대 때 작곡했기에 굉장히 많은 감정과 젊을 때의 대범함과 열정, 그리고 작곡가 특유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곡이죠. 이 작품을 드디어 무대에 올리게 되어 기대와 부담감 및 설레는 마음이 교차합니다. 오래전부터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싶었는데, 너무 좋아해서 오히려 부담스러웠다고 할까요? 제 스승 레온 플레이셔 선생님 즐겨하신 작품이기에 더욱 그랬죠. 더욱 완벽하게 올릴 수 있는 시기를 위해 기다릴 수도

있지만 이제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연에서 나오는 특유의 에너지와 함께 잘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청중에게 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네요, 젊은 시절 브람스의 야망과 불같은 정열·아름다움·풍성함 등이 교차하는 이 작품을 타건하며, 배우고 연주하면서 느낀 기쁨과 행복감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작곡가의 의도를 녹여내 잘 표현하는 연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녀는 상임지휘자 임평용이 이끄는 성남시향과 2012년 9월에 처음으로 조우해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을 잘 합작하며 호평속에 마무리했는데, 이번 공연에서도 이상적인 하모니를 구현하기를 바랍니다.

“당시 임평용 선생님이 솔로리스트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악단과의 호흡도 좋았는데, 이번 공연에서도 좋은 앙상블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교향악이 강조된 곡이니까 함께 조화를 이루며 표현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더욱 긴장도 됩니다.”

### 열정적인 피아니스트

9세 때 부산시향 협연으로 데뷔한 탁영아는 서울예고 재학 중 미국 유학길에 올라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한 뒤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총장 장학금을 수혜하며 수확해 디플롬을 받은 후 피바디 음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은 물론 뉴욕 카네기홀 와일홀·링컨센터를 포함해, 캐나다·미국·일본·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지에서 호평 속에 공연을 펼치며 매우 열정적인 피아니스트이다. 그녀는 매우 뚜렷하고 올곧은 지향점과 함께 열정을 구체화하며 전진해왔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레슨을 받는 시점이 아니어서 혼자 파고들어야 하니까 더욱 의미를 새롭게 찾는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박물관에 가는 것 등은 느끼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악보를 연구 연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과정은 힘들지만 행복한 순간이 있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음악은 물론 저에 대해서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살아가는 것에도 연결이 되어있다는 생각도 하게되고요. 무대에서는 인격과 진심이 담긴 연주를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걸 걸질을 꾸미는 것이 음악에는 안통하죠. 정직한 것이 음악에 나타나고, 청중도 이를 잘 압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쌓은 내공을 토대로 정직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작곡가의 의도에 충실하고, 감정을 통해 구현해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하네요. 음악을 들었을 때, 막연한 감정이 아닌 연구를 하고 파고든 후에 부여할 수 있는 감정이야 의미가 있죠.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표현할지가 중요하기에, 어떤 것을 표현할지 뚜렷한 연주자가 되려 노력합니다.”

그녀의 홈페이지(youngahtak.com)에 나타나있듯 대해 상당히 많은 연주 활동 외에도 탁영아는 피바디 음대 예비 학교 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사우스이스턴 대 교수(2012년 부터는 상주 아티스트로 활약 중인)를 역임한 뒤 현재 필라델피아의 이스턴 음대 교수로 제자를 육성해 오고 있다. 가르치면서 음악에 대해 더 생각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얻는 것도 많으며, 음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는 그녀는, 제자들의 특성을 파악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싶어요. 교감을 통해서 음악에 한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동기가 생기도록 이끌어 주고자 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하고 의미를 찾는 것을 강조하고 스승으로서 그것을 도와주려 해요. 자신이 무얼 원하는지를 찾고 어떻게 나아갈지 이끌어주는 것이죠. 또한 학생마다 재능과 성격, 배우는 방법도 다르기에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을 알아야 되더군요. 특히 인격적으로 아는 것에 비중을 둡니다. 학생들 마다 각기 의미를 찾고 치도록 지도해서, 레슨을 받고난 뒤 스스로 더 알고 싶어지고 스스로 영감을 얻고 연습을 하고싶게 하는 것이 목표이죠. 제가 지도한 학생으로 부터 ‘선생님과 공부 하면 연습을 더 하고 싶어진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이 느껴집니다.”

이런 자세를 스스로 솔선수범해온 그녀는 지난해 11월 출산과 함께 육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주변의 만류에도 3개월 반만인 올해 2월 부터 5월까지 네 차례의 독주회와 두 차례의 협연 공연에 도전해 성공적인 무대를 꾸밀 정도로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 몇 공연을 취소할 수도 있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무언가 넘는다고 생각하며 다독이면서 했죠.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결국 잘 마무리되어 안도와 함께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나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느끼며 새로운 것도 깨닫는 것도 있었고, 이것이 피아노 앞에서 반영될 수 있을 까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좀 더 자세가 낮아진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 몬테나와 플로리다 및 필라델피아에서의 2회의 독주회 등 총 4번의 독주회를 펼치고 9월 10일에는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에서 독주회 외에도 마스터클래스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이스턴 음대에서는 내년 봄을 목표로 피아노 페스티벌도 구상중인 탁영아. 이번 공연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팔에 봉대를 감아가며 준비를 할 정도로 활화산 같은 열정을 드러내고 있는 그녀는 지평을 넓히며 활동을 전개 하고 있고, 향후 더욱 진일보된 모습을 선보일 것임에 틀림없다. **글 | 윤석진**

### 성남시향 정기 연주회 with 탁영아

10월 16일 20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program  
브람스 <협주곡 1번> 외